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국가보훈처

보 도 자 료

든든한 보훈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배포 일시	2022. 4. 29.(금)
담당 부서	제대군인지원과	책임자	과장 김남용(044-202-5750)
		담당자	사무관 성태헌(044-202-5759)

‘2022년 5월의 6·25 전쟁영웅’ 으로 송태호 대한민국 육군 하사 선정

□ 국가보훈처(처장 황기철)는 29일 “6·25전쟁에서 결사대를 이끌고 아군 진지를 사수한 **송태호 대한민국 육군 하사**(1930.11.24.~ 1953.6.12.)를 **‘2022년 5월의 6·25 전쟁영웅’ 으로 선정**했다” 라고 밝혔다.

○ 6·25전쟁 당시 **제1사단 제15연대 수색중대 제1소대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송태호 하사**는 1952년 10월 6일 **중공군이 연천 북쪽 임진강 북안의 고양대 부근 니키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인해전술로 공격을 감행하자 결사대를 이끌면서 진지를 사수하는데 기여**했다.

□ 송태호 하사는 1951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했으며, 1952년 10월 1일 고양대 일대에 투입되었다.

○ 그러던 중 1952년 10월 6일, 중공군은 추계공세의 개시와 함께 아군의 제15연대 방어선 정면에 포격을 시작한 뒤, 저녁 무렵 중공군 1개 대대가 송 하사가 소속된 수색중대 제1소대가 지키던 니키고지를 공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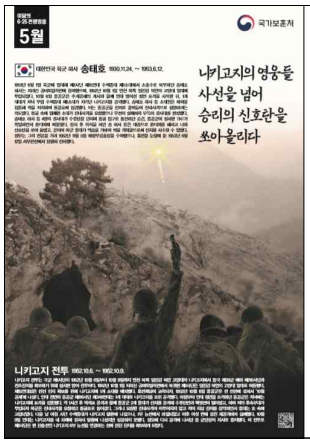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송태호 하사를 비롯한 소대원들은 화력을 집중해 적을 저지하며 동굴호에 집결, **중공군을 진지로 끌어들여 진내사격으로 섬멸하고자 했다.**

○ 동굴 속에 엄폐한 소대가 진내사격을 요청했으나, 무선이 실패하자

부득이 결사대를 편성했다. 이후 **송태호 하사 등 4명의 결사대**가 수류탄을 던지며 동굴 입구로 돌진하던 순간, 중공군이 설치한 폭약(TNT,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화약)이 폭발하면서 흙더미에 파묻혔다.

○ 잠시 후 의식을 차린 송태호 하사 등은 대검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고 빠져나와 **신호탄을 쏘아 올렸고, 곧이어 아군 중대가 역습을 가하여 적을 격퇴함으로써 진지를 사수**할 수 있었다.

□ 송태호 하사는 이러한 공적으로 **1952년 11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**받았지만, 정전협정을 불과 한 달여 앞둔 **1953년 6월 12일 서부전선의 무명고지에서 장렬히 전사**하였다.〈끝〉



송태호 대한민국 육군 하사

(1930.11.24.~1953.6.12.)

상훈 : 화랑무공훈장(1952.11.5.)

※ 위 포스터는 송태호 하사의 인물사진 등이 없어 고증을 거쳐 재구성한 이미지임을 참고 바랍니다.